

Intercessory Prayer

기도¹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요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17절)
찬송	364장(통 482,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과의 목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배움으로서, 자신의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모든 종교에서 중요시하는 종교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기독교의 기도가 샤머니즘과 같은 주술적인 종교나 불교에서의 기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II. 생각 넓히기

1. 기도는 소통이다

기도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정의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대화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소통’이라는 용어로 대체된 듯 하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대화에서 서로 말을 주고 받지만 소통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일방적인 훈계나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는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서 대화의 상대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1. 네 번째 티타임은 기도(prayer)에 관한 글이지만, BASIC의 네 번째 알파벳과 맞추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뜻하는 Intercessory prayer로 표기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주실 때까지 강청(強請)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떼를 쓰기도 한다. 만약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내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우격다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치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아이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를 굴복시키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도는 우격다짐이 아니라 ‘소통’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통으로서의 기도이다.

‘소통이 안되는 연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이미 ‘남’이 아닌 ‘남’이 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에 바탕을 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존재할 수 없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 때, 그 전제는 대화의 상대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즉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다.

영성신학자 브래들리 홀트는 그의 『기독교 영성사』의 부제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Thirsty for God)이라고 붙이고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영성이든지 가장 기초적인 전제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비물질적인 자아 역시 목마르다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가 실제로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수, 곧 신선하고 입안을 툭쏘는 듯 시원하고 순수한 물과 동일



시한다. 우리의 더 깊은 갈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랑을 향한 갈망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사랑 받기를 갈망하고,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사랑으로 특징지어진 세상에 살기를 갈망한다.²

홀트에 의하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관계성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보통 ‘관계’를 이야기할 때 타인과의 관계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로도 읽힐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이웃 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홀트의 말로 돌아가 보자.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영성이 관계성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영성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도가 ‘관계성이 전제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기도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기도로 표현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이며,

2. Bradley P. Holt, *Thirsty for God: A Brief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Fortress Press, 2005), 1.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역시 기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기도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한’의 감정을 ‘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이다.

사랑과 기도는 유사한 점이 있다. 사랑과 기도는 모두 그것에 관한 많은 책들과 이론들을 읽히고 암기함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고백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기도를 배울 수 있다. 기도와 사랑은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마주봄으로써 시작된다. 입술을 열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의 창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지향하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와 사랑의 완성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3. 기도는 숨, 쉬, 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기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보려 한다.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앞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가 신앙 생활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아쉬운 일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영어로 “never stop praying”이다.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쉬다’의 반대말이 ‘일하다’가 아니라 ‘계속하다’라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쉬지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를 질문해 보자.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몸은 숨쉬는 것과 심장박동을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숨쉬듯 기도하고, 심장이 움직이듯 기도한다면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숨쉬듯, 심장이



뛰듯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따라올 것이다.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또는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침묵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는 ‘주여!’하고 신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다. ‘죽겠다’라고 세 음절로 탄식하는 대신 ‘주여!’라고 두 음절로 기도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은가? 물론, 이러한 숨과 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해왔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기도는 노동이라기 보다 쉽이다.’ 생산적인 일을 하느라 바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무익한 시간,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쉽으로서의 기도에 관하여 헨리 나우웬은 『영성 수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기도란 어떤 사람이나 일로 바쁜 대신 하나님으로 바쁜 것이 아니다. 기도란 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익한’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주 무익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 통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다. 내 기도에서 무엇이든 유익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³

기도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이끌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8:26).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전제 조건은 침묵이다. 침묵이란 할 말은 많지만 불리하게 될까 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이란 나의 생각과 주장에 대해 말하기를 멈추는 것이다. 우리가 말을 그치고 침묵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기를,

3. 헨리 나우웬, 『영성 수업』, 윤종석 역(두란노, 2007), 94.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는 5-6세기경 위-디오니시우스에 의해서 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영성 생활의 세 단계의 구분이 있다. 그것은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그리고 일치의 단계이다. 위-디오니시우스는 마지막 일치의 단계를 완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사랑을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 그 방법은 기도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숨을 쉬고, 힘을 얻고, 쉼을 누리는 것이다.

III. 생각살기

1. 현재 자신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고, 오늘 배운 내용에 기초하여 다음 시간까지 올바르게 기도하는 삶을 훈련해 봅시다.
2. 주변에 여러 면에서 지치고 힘들어 하는 성도가 있다면 간략하게 나누어 보고,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4. Dyan Elliott, "Rapus/Rapture,"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ian Mysticism*, ed by Amy Hollywood and Patricia Z. Beckm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192.